

# 남방 왜인설의 목적 및 방법에 관한 고찰\*

## - 일본민족 기원론과의 관련성 -

세키네 히데유키\*\*  
sekine@gachon.ac.kr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2 코쿠부의 연구 목적  |
| 2. 왜인 남방설의 개요      | 3.3 도리고에의 연구 목적 |
| 2.1 에가미의 '왜인강남도래설' | 4. 학제적 연구 방법    |
| 2.2 고쿠부의 남방 왜인설    | 4.1 에가미의 연구 방법  |
| 2.3 도리고에의 '왜족론'    | 4.2 코쿠부의 연구 방법  |
| 3. 목적으로써의 일본민족 기원론 | 4.3 도리고에의 연구 방법 |
| 3.1 에가미의 연구 목적     | 5. 마치며          |

主題語: 왜인(Waein), 에가미 나미오(Egami Namio), 고쿠부 나오히치(Kokubu Naoichi), 도리고에 겐자부로 (Torigoe Kenzaburo), 민족기원론(Ethnogenesis), 일본민족(Japanese race), 단일민족(homeogenous nation)

## 1. 들어가며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을 비롯하여 중국 正史는 고대 일본열도의 주민을 ‘倭人’이란 명칭으로 기술하고 있는 관계로<sup>1)</sup> ‘왜인=고대 일본인’이라는 견해가 학계의 정설로 정착되어 왔다.<sup>2)</sup>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에 이의를 제기한 논자들이 나타났다.

우선 이노우에 히데오(井上秀雄, 1924~2008)는 ‘왜=일본=야마토(大和) 조정’이란 통념이 헤이안(平安) 시대의 『일본서기(日本書紀私記)』<sup>3)</sup>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어 그것이 오늘날

\* 이 논문은 2013년 가천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GCU-2013-R322)

\*\* 가천대학교 일본어문학과 교수

1) 『한서(漢書)』·『후한서(後漢書)』·『삼국지(三國志)』·『송서(宋書)』·『수서(隋書)』·『구당서(舊唐書)』·『신당서(新唐書)』 등

2) 그 명칭 倭(wa)의 유래가 我(wa)의 전와(轉訛), 이도국(伊都國)의 전와(Itu[伊都]→Witu[倭土]→Wi[倭]), 왜가 순한 민족성을 나타내는 왜의 뜻에 있다는 등의 견해들이 제창되었다(石田道博 1985:18-30)

3) 헤이안시대에 행해진 『일본서기』에 관한 강서(講書) 내용을 정리한 서적

의 학계에 정착된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한 바 있다(井上秀雄 1973:286-287). 그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왜의 위치 혹은 왜인의 거처를 일본열도의 외부, 예를 들어 한반도 남부, 중국 동북부, 내몽고, 중국 강남지방, 타이완(臺灣), 일본 남부 제도 등에서 찾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견해는 ‘북방 왜인설’, ‘남방 왜인설’, ‘한반도 남부 왜인설’로 불리기도 하고(井上秀雄 1973:16) ‘광의의 왜인론’으로 총괄되기도 한다(沈仁安 1990:16-31). ‘왜인=고대 일본인’은 여전히 정설로써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의 일본사 연구자인 셴렌안(沈仁安, 1935~)이 평가하기에 광의의 왜인론은 1990년 이후 정설이 될 만큼의 기세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沈仁安 2003:363).

이처럼 왜인의 정체성에 관하여 아직 모두가 인정하는 합의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광의의 왜인론은 현재 일본고대사의 미해결된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남방 왜인설은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제기된<sup>4)</sup> 견해로써 가장 유력한 광의의 왜인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방 왜인설이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남방 왜인설의 제창자들은 주로 『산해경(山海經)』·『논형(論衡)』과 같은 정사 외의 문헌의 분석을 통해 논의를 전개했는데 여기서는 그 논거의 타당성이 아니라 그들의 연구의 목적이나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고자 한다.

셴렌안은 대표적인 논자로서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 1906~2002), 고쿠부 나오이치(国分直一, 1908~2005)를 들었는데 필자는 거기에 ‘왜족론(倭族論)’의 제창자 도리고에 겐자부로(鳥越憲三郎, 1914~2007)를 더하고 그들의 학설내용과 목적·방법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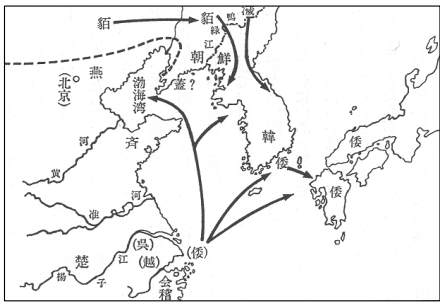
## 2. 왜인 남방설의 개요와 문헌적 논거

### 2.1 에가미의 ‘왜인장남도래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주장된 남방 왜인설의 효시는 에가미 나미오의 ‘왜인장남도래설’이었다. 그의 ‘기마민족설’은 잘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해, 그가 ‘기마민족으로부터 지배받은 일본민족의 기원을 남방 아시아에서 찾았던 것’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4) 야마지 아이잔(山路愛山, 1865~1917)은 1914년에 『삼국지』에 보이는 경면(黥面) 문신을 비롯하여 고대 일본의 민속들은 중국 남부, 인도 동부, 남양의 풍속과 유사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山路愛山 1976:165-171)

에가미는 왜인의 정체를 고찰하는데 『산해경』과 『한서(漢書)』에 주목하였다. 전국시대부터 진한(秦漢)기에 걸쳐 저술된 『산해경』에는 “개국(蓋國)은 거연(鉅燕)의 남쪽, 왜의 북쪽에 있으며 왜는 연에 속한다(蓋國在鉅燕南倭北 倭屬燕)”<sup>5)</sup>라는 기술이 있다. 왜가 개국과 서로 맞닿는다면, 당연히 왜가 중국 동남부나 한반도 서북부에 위치하는 나라로써 중국에 알려져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술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후한(後漢)대에 편찬된 『한서(漢書)』에는 “낙랑(樂浪)의 해중에 왜인의 나라가 있다. 백 여국으로 나뉘어 있다. 특산물을 가지고 조공하였다(樂浪海中有倭人分爲百餘國以歲時來獻見云)”라는 기술이 있는데 지리적으로 먼저 조공했어야 할 한인(韓人)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할 때 『산해경』, 『한서』에 기술되어 있는 왜는 일본이 아니라 <그림1>과 같이 다른 해역에 있었다는 것이다(江上波夫 1984:116-121).



<그림 1> 전국·전한시대(전4-전2세기)의 동북아시아(江上波夫 1984:117)



<그림 2> 후한·삼국시대(1-3세기)의 동북아시아(江上波夫 1984:117)

에가미는 후한대 이후에 왜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후한서(後漢書)』·『삼국지』는 북부 규슈(九州)의 작은 나라들(奴國·伊都國)이 후한에, 아마타이코쿠(邪馬台國)의 히미코(卑彌呼)가 위(魏)나라에 조공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에가미는 <그림2>와 같이 이 시점으로부터 왜인이 일본열도 주민이란 인식이 정착되었다고 한다.

또한 에가미는 『논형』의 “주(周)대 때는 천하태평하며 월상(越裳)은 흰 깻을 바치고 왜인은 ‘창초(鬯草)를 바쳤다(周時天下太平 越裳獻白雉 倭人貢鬯草)”는 기술에 대해서도 고찰을 가했다. 창초는 주로 중국 강남 지역에 분포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생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5) 왜인이 중국 동북부에 있었던 연(燕)나라에 속하고 있었다는 기술이다. 그 시기가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경으로 생각된다. 『산해경』은 전설 및 신화 등 가공 나라가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신빙성 문제가 있다.

근거로 왜인의 기원을 중국 강남으로 추정하였다. 나아가 그는 고대 동아시아에 분포되어 있었던 왜인을 다음과 같이 총괄하였다.

왜인은 전국시대까지는 아직 일본열도나 한반도까지는 오지 않았다. 오키나와(沖繩), 산둥(山東) 반도, 랴오둥(遼東)반도에 거처를 두면서 발해만에 들어가 연(燕)나라와 교역을 하고 있었다. 한반도나 일본열도에 이주하려고 갔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역 목적으로 해상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진시황(秦始皇)과 한무제(漢武帝)대에 한(漢)족이 남하함에 따라 그 압박에서 도피한 사람들이 한반도 남부나 일본열도로 이주했을 것으로 생각한다(江上波夫 1984:145-149).

즉 왜인의 일본 정착은 한족의 남하 침입을 계기로 일어난 민족이동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찍이 왜인이 화중(華中)·화남(華南) 연안의 다도해에서 교역이나 어로로 생활을 영위한 해양민족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江上波夫 1984:15-16).

일본으로 이주한 왜인은 중국 강남에서 일본으로 직접 도래한 계통과 한반도를 경유하여 요녕(遼寧)문화를 수용한 상태로 도래한 계통이 있다고 한다(江上波夫 1984:135).<sup>6)</sup> 이와 같이 예가미는 원래 왜인이 중국 강남에 기원을 두고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해양민족이었다가 1세기 이후에는 일본에 정착된 무리만이 왜인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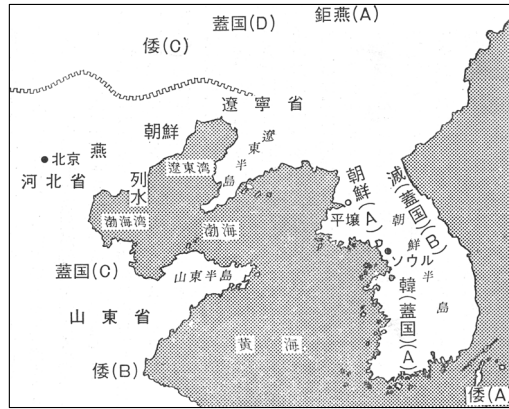
## 2.2 고쿠부의 남방 왜인설

고쿠부 나오이치는 이노우에, 예가미 그리고 형질인류학자인 가나세키 다케오(金関丈夫, 1897~1983)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설을 구성하였다.

고쿠부도 역시 『산해경』의 ‘개국은 거연의 남쪽, 왜의 북쪽에 있으며 왜는 연에 속한다’라는 구절의 검토부터 이노우에의 견해를 실마리로 왜의 위치를 고찰하였다. 종래 학계에서는 거연(鉅燕)의 ‘鉅’자를 ‘크다’는 뜻으로 해석함으로써 ‘전연(全燕)’으로 파악하여 연·개국·왜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의 대안이 있었다. <그림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하나는 개국이 산둥반도 북부(C)에, 왜가 산둥반도 남부(B)에 위치했다는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개국(A[濊]·B[韓])이 한반도에, 왜(A)가 일본열도에 위치했다는 견해이었다. 이러한 기존의 정설에 대해 이노우에는 ‘鉅’자를 ‘구석’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여 거연(A)·개국(D)·왜(C)를 만리장성

6) 그러나 예가미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한인(韓人)이 이주한 것을 가능한 한 과소평가하려는 존재구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세키네 히데유키 2011:409-439)

보다 북쪽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다(井上秀雄 1975:124-127). 말하자면 이노우에는 북방 왜인설을 제창한 것이다.7)



<그림 3> 『山海經』 현지 比定圖(井上秀雄 1975:125)

그러나 고쿠부는 왜가 일본열도 외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이노우에의 시도를 높게 평가하되 왜가 만리장성 북쪽에 존재했다는 점은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왜가 동중국해에서 교역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에가미의 견해와 왜인을 산둥반도를 기점으로 북쪽으로는 랴오둥(遼東)반도까지, 남쪽으로는 후대의 낙랑군(樂浪郡)의 강역까지로 추정한 가나세키의 견해를 수용하였다. 거기에 왜인이 어로·농경민이었을 것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더하여 왜는 만리장성 북쪽이 아니라 발해 연해나 연안에 위치했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国分直一 1980:154-157).

그리고 고쿠부는 『산해경』에 나온 연나라의 속국인 왜와 『삼국지』에 나온 일본열도의 왜의 차이가 생긴 원인에 관하여 그것을 시대적인 인식 차이에서 찾았던 에가미와 달리 왜인의 민족이동 경로에서 찾았다. 즉 전자는 ‘동중국해 북변부(北邊部) 경로’를 통해, 후자는 ‘동중국해 외변(外邊) 경로’를 통해 이동한 결과 왜의 위치가 다양해졌다는 것이다(国分直一 1992:126-127).

요컨대 고쿠부는 광의의 왜인론을 제창한 이노우에의 시각을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도 북방 왜인설을 부정하여 남방 왜인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다.

7) 이 시점에서는 이노우에는 북방 왜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남부 왜인설’의 제창자로 알려져 있다.

<http://ja.wikipedia.org/wiki/%E4%BA%95%E4%B8%A%E7%A7%80%E9%9B%84>(검색일2013.7.1)

## 2.3 도리고에의 ‘왜족론’

도리고에는 에가미나 고쿠부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왜인을 파악하였다. 그는 자신의 학설을 설명하는데 가설적인 개념으로써 ‘왜족(倭族)’이란 용어를 제기하였다. 이는 그의 정의에 의하면 ‘벼농사를 수반하여 일본열도에 도래한 왜인, 즉 야요이인(弥生人)과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총칭한 개념’이라는 것이다(鳥越憲三郎 1993:7-8). 그는 왜족 개념을 통해서 왜인과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과의 민족적, 문화적 계통관계를 재조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도리고에도 역시 에가미와 마찬가지로 『논형』의 기사를 근거로 왜인의 거처를 중국 남부에서 찾았을 뿐만 아니라 본초학 연구서 『본초강목(本草綱目)』을 근거로 그 본거지를 쓰촨성(四川省)으로 특정하였다(鳥越憲三郎 1982:23-25). 또한 『사기(史記)』·『한서(漢書)』·『후한서(後漢書)』를 실마리로 장강 상류에 왜족의 옛 왕국들<sup>8)</sup>이 존재하였으나 한(漢)족의 침입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다음과 같이 각지에서 흥망을 거듭했을 것으로 전망했다(鳥越憲三郎 1982:35-37).

우선 전환의 침공으로 대부분의 왕국은 멸망하였으며 남은 왕국들도 삼국시대와 원(元)나라시대에 토멸되어 장강 상류지역의 왕국들은 전멸되었다(鳥越憲三郎 1982:37-57). 망국의 백성이 된 왜족들은 강을 따라 사방으로 흩어져 일부는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여러 왕국을 세웠다가 근대에 들어서 버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건국하였다(鳥越憲三郎 1985:11-12). 한편 산악지대로 들어간 무리는 중국 서남부에서 인도차이나반도에 걸쳐 소수민족으로서 왜족의 맥을 이어갔다(鳥越憲三郎 1982:13). 또한 장강 하류지역으로 이동한 무리는 하무도(河姆渡) 유적을 남기고 그 일부는 산둥반도로 북상하여 한(漢)족한테 동이(東夷)<sup>9)</sup>로 불렸다. 은(殷)나라는 그들이 세운 나라였으며 주대에는 서이(徐夷), 회이(淮夷), 담이(郟夷), 거이(莒夷), 엄이(奄夷), 레이(萊夷)라는 작은 나라들을 세웠으나 주나라, 제(齊)나라에게 멸망되거나 오(吳)나라에 흡수되었다. 그 오나라도 끝내 월(越)나라에 의해 멸망(B.C.473년)되고 많은 유이민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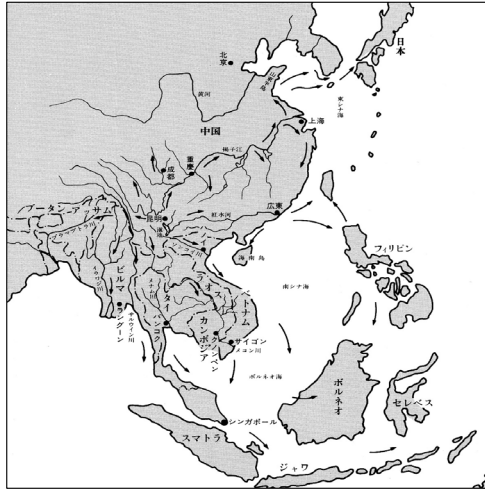
그들 중 일부는 한반도 중남부에 진출해 토착민족이었던 예맥(濊貊)과 혼합하면서 ‘한인(韓人)’이란 명칭으로 중국사서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통합을 거부한 무리는 ‘왜인’이란 명칭으로 불리게 되면서 한반도에서 정착하였다. 한편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일본으로 간 무리도 있었는데 그들이 일본의 왜가 되었다고 한다(鳥越憲三郎 1992:12-16).<sup>10)</sup> <그림 4>는 왜족의

8) 알국(歹国)·야랑(夜郎)·공도(邛都)·곤명(昆明)·궤사(僞徙)·작(笮)·염방(冉駝)·축(蜀)·파(巴)·차란(且蘭)

9) 동이의 이해는 논자에 따라 다르다. 주대 이전에 장쑤성(江蘇省)이나 산둥반도에 거주했던 민족과 진한(秦漢)대 이후 중국 동북부, 한반도, 일본열도에 거주했던 예(濊)·맥(貊)·한(韓)·왜(倭)와 같은 민족을 동일시하는 입장과 구별하는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도리고에는 후자의 입장에서 서 있다.

10) 예전에 도리고에는 에가미처럼 왜인이 일본으로 도래할 때 대륙에서 직접 도래한 경우와 산둥반도와 한반도를 경유한 경우를 상정하였지만(鳥越憲三郎 1982:88-89) 90년대에는 모두 한반도를 경유한 경로

민족이동과 이에 따른 그들의 상징적인 문화인 벼농사와 고상식 건물(高床式建物)의 전파양상을 그린 것이다.



<그림 4> 왜족과 벼농사·고상식 건물의 이동 (鳥越憲三郎 1983:11)

이상 대표적인 남방 왜인설을 개요를 살펴보았다. 왜인의 본거지, 민족이동의 계기, 이동경로나 범위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만 근본적으로 왜인이 일본열도 주민이 아니라 남방 동아시아 민족이었다는 기본적인 시각은 같다. 그리고 『산해경』·『논형』과 같은 문헌 기술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점도 공통된다.

### 3. 목적으로써의 일본민족 기원론

#### 3.1 에가미의 연구 목적

위에서 본 대표적인 왜인 남방설의 제창자들의 연구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동양사학과에서 ‘동아고고학’을 전공한 에가미는 1930년에 졸업한 후 베이징(北京) 대학에서 유학하여 화북(華北)의 한인(漢人) 지대나 내몽고의 유목민지대의

---

만을 생각하게 되었다(鳥越憲三郎 1993:18).

고고학조사를 하거나 산둥반도, 만주, 요동반도를 답사했다(江上波夫 1986: 231-308). 유학을 마친 후에는 동방문화학원 연구원 및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교수로서 유라시아를 무대로 많은 조사연구를 하였다.<sup>11)</sup> 에가미는 유라시아를 무대로 전전, 전후를 통하여 많은 조사를 실시했는데 80년대에 자신의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고대일본사의 복원에 관해서 말하자면, 종래의 역사관은 국외와의 관계를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여 접은 일본열도 속에 한정시킴으로써 억지로 역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보인다. (중략) 일본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세계 속의 일본, 적어도 동아시아 속의 일본이란 큰 시야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전체상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러한 방법론적 입장에서 유라시아대륙의 농경도시민족이나 유목기마민족, 그 중간에 있었던 민족, 혹은 두 민족이 상하로 겹친 민족 등, 다양한 역사적 유형을 집성하여 역사의 가설적 전체상을 만들려고 했다(江上波夫 1986:273).

위와 같이 에가미의 연구 목적은 현장 조사 경험과 범아시아적 시야를 바탕으로 한 일본사의 복원에 있었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목기마민족뿐만 아니라 농경민족의 규명도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 사실 에가미의 학창시절에는 주변에 중국문화의 연구자가 많았던 관계로 북방 유라시아의 스키타이계 기마민족, 장성지대, 남만주, 조선, 서일본(야요이 문화)에 걸친 청동기문화를 연구하게 되었다. 그러한 한편으로 그는 비(非) 한(漢)족 문화의 중요성도 인식하여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江上波夫 1978:9). 에가미가 제창한 왜인강남도래설은 이러한 배경으로 제창된 것으로 풀이된다.

### 3.2 코쿠부의 연구 목적

코쿠부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타이완에서 지내고 교토제국대학에서 수학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교사생활을 하면서 고고학 연구에 착수하였다. 1943년부터는 타이베이 사범학교 교수로서 타이완의 선사유적을 조사하였는데 패전 후에도 중화민국 정부의 요청으로 타이완에 체류하면서 자료정리나 발굴조사를 계속하였다. 1947에는 타이완대학 사학과계(史學科系) 교수로서 타이완 고고학의 토대를 만드는데 진력하였다가 1949년 9월에 일본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귀국한 해의 2월에 코쿠부는 타이완대학에서 좌담회 기록 「일본민족=문화의 원류와 일본국가의 형성」(石田英一郎·岡正雄·八幡一郎·江上波夫 1949:207-277)을 감명 깊게 읽고 이에 촉발되면서 일본 민족문화의 형성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国分直一 1976:1). 귀국 후 그는 오키나와 연구를 추진하다가 서서히 주제를 일본 민족문화의 기원으로

11) <http://ja.wikipedia.org/wiki/%E6%B1%9F%E4%B8%A%E6%B3%A2%E5%A4%AB>(검색일:2013.7.10)



옮겨갔다(세키네 히데유키 2012:171-172).

이와 같이 고쿠부는 일제 식민지에서 태어나 패전 후 본토에 귀환한 전형적인 연구자였다. 타이완 현지에서 얻은 남방계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애착이 귀환 후의 연구주제, 즉 오키나와 연구나 일본민족 문화의 기원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70년대에 추진했던 왜인 연구가 일본민족 문화의 기원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이 남방 왜인설로 전개된 것은 예견된 귀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3.3 도리고에의 연구 목적

도리고에는 개교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간세이가쿠인대학(関西学院大学) 문학부에 입학하여 미국인 교수를 사사하여 종교학을 수학했다. 1939년, 오키나와 현지에서 향토연구가 시마부쿠로 겐이치로(島袋源一郎, 1885~1942)의 도움을 받아 오키나와 현지에서 전통 종교의례 연구를 추진하였다. 패전 후에는 오사카가쿠게이대학(大阪学芸大学) 교수로서 당시 미해독 상태였던 류큐(琉球) 왕조 가요집 ‘오모로소우시(おもろそうし)’의 현대어역을 완수하였다. 1970년대부터는 일본고대사연구로, 80년부터는 왜족연구로 주제를 이행해 갔다.

오키나와를 ‘일본고대사회의 박물관’(鳥越憲三郎 1991:26)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도리고에의 오키나와 연구는 오키나와의 독자적 문화 규명이라기보다 애당초부터 일본민족의 기원 규명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제창한 왜족론의 경우도 도작농경민의 민족이동 규명을 내걸고 있지만 주된 관심사는 역시 일본민족의 기원에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그의 연구대상은 오키나와, 일본고대사, 왜족으로 옮겨갔지만 모두가 일본민족의 기원이란 주제로 수렴되어 있는 것이다(세키네 히데유키 2013:212-214).

이상 살펴본 것처럼 에가미, 고쿠부, 도리고에의 왜인 연구의 목적은 왜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민족의 기원이란 최종 목적에 다다르기 위한 중간 목적이었던 것이다.

## 4. 학제적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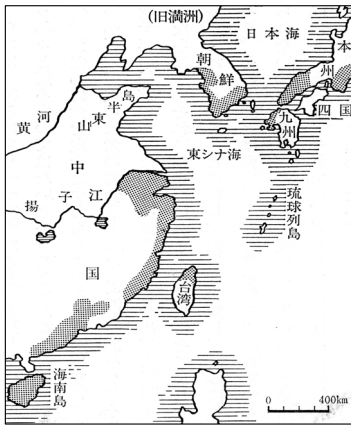
### 4.1 에가미의 연구 방법

에가미, 고쿠부, 도리고에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문헌적 근거를 각기 제시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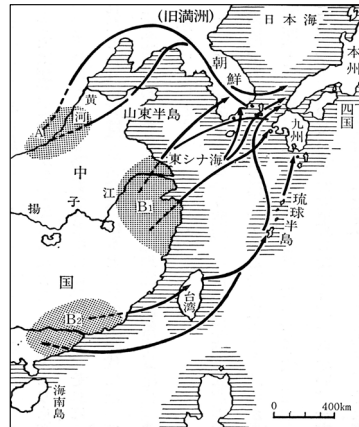
데 그들이 연구 방법 면에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에가미의 방법은 먼저 그의 학통과도 관련이 있다. 그가 수학한 도쿄제국대학 동양사학과는 서양사학이나 국사과와 달리 과거의 사항이라면 종교, 신화, 습속 등 무엇이든 연구대상으로 인정받은 이색적인 학과였다는 점이(江上波夫 1986:263-266) 주목된다.<sup>12)</sup> 게다가 당시 일본학계의 새로운 사조 속에서 민족학, 민속학, 사회학, 종교학, 선사학, 형질인류학, 인문지리 등 인류학 관련 분야의 학제적 연구를 지향하는 모임 ‘APE(Anthropology·Prehistory·Ethnology)회’가 결성되었는데 그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江上波夫 1986:309-310). 이처럼 젊은 시절의 에가미는 당시의 보편적인 사학자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요건 속에 있었던 것이다.

에가미가 농경민족인 중국 소수민족에도 관심을 갖고 그것이 왜인강남도래설로 이어진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에 그는 일본의 벼농사 문화의 운반자로서의 왜인을 구상하여 서일본, 한반도 서남부, 동중국해 연해, 타이완 북부 등에서 출토된 벼농사 관련 석기를 실마리로 동중국해의 벼농사 전파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림 5>·<그림 6>은 벼농사 관련 석기의 분포와 벼농사의 전파를 추정한 것이다.



<그림 5> 벼농사 관련 석기 분포  
(江上波夫 1984:23)



<그림 6> 벼농사 전파 경로의 추정  
(江上波夫 1984:19)

12) 창시자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1865~1942)는 동양의 언어, 문화, 종교, 사회의 전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인정했으며 에가미의 스승이자 문헌사학자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1878~1952)도 사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고학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江上波夫 1986:263-266).

위와 같이 예가미의 왜인강남도래설은 문헌분석에 앞서 고고학 및 민족학적 고찰을 바탕으로 한 가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

## 4.2 고쿠부의 연구 방법

타이완 고고학의 토대를 만든 고쿠부는 귀국 후 연구주제를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남방계 문화 연구로 전환한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70년대 당시 고쿠부는 구미에서 새로운 조류로 부상하고 있었던 ‘민족고고학(Ethnoarchaeology)’에 주목한 바 있다. 민족고고학은 과거의 복원을 위한 모델이나 가설을 만들 때 고고학 데이터나 현존 민족의 전통문화를 원용하는 학문인데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国分直一 1976:8-18).

필자가 습득하고 싶었던 것은 선사학적 조사에 의해 얻어진 자료의 기능이나 의미를 민족학·민속학 조사 사례를 통해서 파악하여 민족학적·민속학적 데이터의 시간적 깊이를 선사고고학 조사를 토대로 고려해 나가는 방법이었다(国分直一 1976:4).

이와 같이 고쿠부는 민족고고학처럼 민족학적·민속학과 고고학의 종합을 제창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문헌사학과 고고학의 병용은 자연스러운 일로 간주되고 있지만 민족학·민속학 데이터까지 분석 대상으로 원용하려는 고쿠부는 좀 더 적극적인 학제적 성향을 지닌 연구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80년대 당시 일본민족의 기원연구에 관해서 민족학자 오카 마사오(岡正雄, 1898~1982)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오카 마사오는 일본 민족문화의 재구성을 진행시키는데 스승인 슈미트슈미트(Wilhelm Schmid)보다도 다양한 방법을 구사했다. 오카는 일본 고고학 연구의 성과를 충분히 인용하여 시간적 관계를 파악하는데 활용하였다. 말할 필요 없이 주변 지역의 종족문화와의 대비를 통해서 계통관계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 (중략) 민족학과 고고학의 협력관계를 진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하이네겔더른(Robert Heine-Geldern)에 가깝다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오카의 경우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민속학, 신화학, 언어학, 고전연구의 성과도 인용하고 있다(国分直一 1976:15).

이와 같이 고쿠부는 일본문화 연구를 위해 고고학과 민족학의 가교 역할은 물론 다양한

13) 독일출신 민족학자 및 언어학자. 신언회(神言會) 수도사. 단계적 진화론을 비판하여 ‘문화권설’을 제창하여 민족학분야의 빈학파의 기초를 만들었다. 빈대학 철학부 민족학과에서 교편을 잡았다.

인접학문을 원용한 학제적 접근을 시도한 오키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오키가 지향한 학문인 ‘역사민족학(Historische Ethnologie)’은 고고학, 역사학, 민속학, 언어학, 인류학, 신화학, 종교학 등 문화와 관련된 모든 학문을 총동원해서 일정한 범주의 문화 총체인 ‘문화권’ 내지 ‘문화복합’을 밝히는 방법을 택한다.<sup>14)</sup>

고쿠부가 지지했던 민족고고학과 역사민족학은 인접학문의 성과를 원용하여 역사의 복원을 지향한다는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다. 문헌사학과 고고학의 병용은 오늘날 널리 수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민족학적·민속학적 데이터까지 원용한 고쿠부는 학제적 시향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 동시대의 연구자보다 앞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4.3 도리고에의 연구 방법

도리고에의 연구는 고고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종교학 등을 원용한 폭넓은 학제적 접근에 특징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淺香勝輔 2007:3). 왜족론에서도 중국 사서를 두루 재검토했을 뿐만 아니라(鳥越憲三郎 2004:1-120) 고고학적 성과의 재해석<sup>15)</sup>이나 민속조사<sup>16)</sup>까지 실시하였는데(鳥越憲三郎 1992:113-210) 도리고에는 이러한 방법의 채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두 번의 오키나와 조사에서 나는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 집필에 착수했다. 그것이 나중에 출판된 『류큐고대사의 연구(琉球古代史の研究)』로써 상재(上梓)하게 되었다. 그 때의 방법론이 그 후의 저서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鳥越憲三郎 1991:28).

위와 같이 그는 1930년대의 오키나와 조사에서 평생 사용하게 된 새로운 연구 방법을 습득

- 
- 14) 현존 민족에 관한 지식, 다른 지역과의 비교고찰, 문화의 계통이나 계보를 중시한다. 잡다한 지구상의 문화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들을 질서 있게 인식하기 위해서 문화권 내지 문화복합 별로 분류하여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요소를 고문헌, 민속학 등에서 적출하여 유별함으로써 정립한다.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방법을 원용해서 문화복합의 연대를 추정함으로써 문화의 역사를 구축한다. 그 과정에는 형질인류학, 비교언어학의 성과도 원용한다(石田英一郎·岡正雄·八幡一郎·江上波夫 1949:210-211).
- 15) 예를 들어 장강 하류의 하무도 유적(鳥越憲三郎 1985:3), 저장성(浙江省)의 루오자자오(羅家角) 유적과 마자방(馬家浜) 유적, 상하이(上海) 근교의 송저(崧澤) 유적(鳥越憲三郎 2000:96-99), 쓰촨성의 산싱뫼이(三星堆) 유적 등이다. 또한 새로운 고고학적 발견으로 정설이 여러 번 바뀐 벼농사의 기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후난성(湖南省)의 평터우산(彭頭山) 유적(1988~1989)과 청터우산(城頭山) 유적(1991)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鳥越憲三郎 2000:100-178).
- 16) 실제 필드워크를 통해 도리이(鳥居), 고상식(高床式) 주거, 관두의(貫頭衣) 형태의 의복, 솟대, 장승 등을 왜족의 이동과정에서 남긴 민속으로 파악하여 그 계통의 규명을 시도하였다(鳥越憲三郎 1992:113-210).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추측컨대 그가 습득한 방법론이란 시마부쿠로에 의해 전수받은 연구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마부쿠로는 왕가나 귀족들의 흥망을 규명하기 위해 문헌자료, 오래된 성터, 유적, 문중조직, 종교행사, 연중행사, 전설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원용해서 역사의 복원을 시도했었다.<sup>17)</sup> 도리고에가 오키나와에서 체득하여 평생 사용하게 된 연구 방법이란 이러한 학제적 접근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에가미, 고쿠부, 도리고에의 연구 방법을 개관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왜인연구에 학제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 5. 마치며

전통적으로 중국정사에 나오는 왜인은 고대 일본인으로 알려져 왔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왜인 개념의 범위를 일본보다 널리 파악하는 광의의 왜인론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남방 왜인설은 정설이 아닐지라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본고는 남방 왜인설의 속성을 밝히는 하나의 시도로서 그 대표적인 제창자들, 즉 에가미, 고쿠부, 도리고에의 연구 목적과 방법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드러내려는 시도였다. 사례 수가 적어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여기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에가미, 고쿠부, 도리고에는 종래의 왜인 연구와 달리 정사가 아닌 『산해경』, 『논형』 등의 문헌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들은 다소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왜인의 기원을 중국 남부에서 찾았으며 한(漢)족의 침입을 계기로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그 일부가 일본열도에 도달하여 정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원래 왜인은 고대 일본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연구 목적의 특징은 왜인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일본민족의 기원에 있었는데 그 이유로서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세대적인 요건이다. 에가미, 고쿠부, 도리고에는 각각 1906년생, 1908년생, 1914년생으로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이미 연구생활을 하고 있었다.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에서 일본민족의 기원이란 주제는 많은 지식인들이 선호했던 주제였으며 특히 ‘혼합민족설’, 즉 일본민족은 아시아의 여러 민족의 혼합체로 보는 시각은 널리 공유된 패러다임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왜인을 일본열도 밖에서 찾는 시도는 옛 패러다임의 계승이었으며 왜인을 일본민족의 구성 요소로 간주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

17) <http://yannaki.info/simagen.html>(검색일:2013.7.20)

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들의 경험이다. 남방 왜인설 논자들은 전전(戰前)에 각각 중국대륙, 타이완, 오키나와에서 현장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었다. 전후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을 일본민족의 기원으로 전환하였다. 그들이 일본민족의 기원과 자신의 옛 필드의 관련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학설을 구성해 나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남방 왜인설 논자들에게 있어 왜인 연구의 목적은 일본민족을 구성하는 남방계 요소를 규명하는 일이었다. 다시 말해, 일본민족의 기원 규명이란 최종 목표에 이르기 위한 중간 목표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남방 왜인설 논자들의 방법론은 학제적인 접근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들은 직접적인 논거로써 『산해경』·『논형』이나 중국사서와 같은 문헌 자료를 제시했지만 각 논자들은 문헌사학자가 아니었다. 에가미와 고쿠부는 고고학, 도리고에는 문화인류학을 본령으로 한 연구자이며 그들에게 있어 문헌분석은 학제적 접근의 하나에 불과했었던 것이다. 그들이 세운 기설 역시도 문헌분석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들의 주 전공분야의 연구결과 얻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분석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방도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남방 왜인설의 내용과 목적·방법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관련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거꾸로 ‘왜인=고대 일본인’이란 기존의 정설도 목적이나 방법의 관점으로 검증받을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가령 그 학설의 배경에 일본민족의 혼합성이란 문제의식이 배제된 채 순수한 민족으로 간주하려는 단일민족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노우에의 지적대로 ‘왜인=고대 일본인’이란 정설이 헤이안 시대의 『일본서기사기』에 유래된다면 이러한 정설이 그 이전, 즉 8세기 이전의 문헌으로 총체적으로 재검증 받아야 마땅할 것 것이다. 그 때 문헌분석만으로 충분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고고학이나 인류학 등 인접학문의 방법을 원용해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 【參考文獻】

세키네 히데유키(2013) 「도리고에 겐자부로의 일본민족기원론」 『日本文化研究』 제46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212-214

(2012) 「고쿠부 나오히치(国分直一)의 일본문화 기원론 -‘문화전파’와 ‘민족이동’의 관점에서」 『日本近代學研究』 제38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171-172

(2011)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 일본민족 기원론에서의 왜인과 한인」 제24집, 東아시아古代學會, pp.409-439

浅香勝輔(2007) 「帛辞」(鳥越憲三郎先生追悼特集)『生活文化史』52卷, 日本生活文化史学会, p.3

石田英一郎・岡正雄・八幡一郎・江上波夫(1949) 「日本民族=文化の源流と日本國家の形成:對談と討論」『民族學研究』第13卷 第3号, 日本民族協會, pp.207-277

石田道博 編訳(1985) 『新訂 魏志倭人伝 他三篇 -中国正史伝(1)-』岩波書店, pp.18-30

井上秀雄(1975) 「中国古典の朝鮮と倭」国分直一 編『倭と倭人の世界』毎日新聞社, pp.124-127

\_\_\_\_\_ (1973) 『任那日本府と倭』寧楽社, pp.286-287

江上波夫(1986) 「わが生い立ちの記」『江上波夫著作集 別巻 幻人詩抄』平凡社, pp.263-310

\_\_\_\_\_ (1984) 「日本における民族の形成と国家の起源」『江上波夫著作集 8 倭人の国から大和朝廷へ』平凡社, pp.15-148

江上波夫・大林太良(1978) 「日本民族の起源 -倭と倭人」江上波夫 外『論集 日本民族の起源: 倭と倭人』大和書房, p.8

国分直一(1992) 『北の道 南の道 -日本文化と海上の道-』第一書房, pp.126-127

\_\_\_\_\_ (1980) 『東シナ海の道 -倭と倭種の世界-』法政大学出版局, pp.154-156

\_\_\_\_\_ (1976) 『環シナ民族文化考』慶友社, pp.4-18

\_\_\_\_\_ (1976) 『日本民族文化の研究』慶友社, p.1

沈仁安(1990) 『倭国と東アジア』六興出版, pp.3-31

鳥越憲三郎(2004) 『中国正史倭人・倭国伝全訳』中央公論新社, pp.1-120

\_\_\_\_\_ (2000) 『古代中国と倭族 -黄河・長江文明を検証する-』中央公論新社, pp.96-178

\_\_\_\_\_ (1993) 「倭族と古代日本」諏訪春雄 編『倭族と古代日本』雄山閣, pp.7-18

\_\_\_\_\_ (1992) 『古代朝鮮と倭族』中央公論, pp.12-210

\_\_\_\_\_ (1991) 『古代史への道』株式会社ブレーンセンター, pp.26-28

\_\_\_\_\_ (1985) 『倭族から日本人へ』弘文堂, p.3

\_\_\_\_\_ (1983) 『雲南からの道: 日本人のルーツを探る-』角川書店, p.11

\_\_\_\_\_ (1982) 『原弥生人の渡来』角川書店, pp.13-89

山路愛山(1976) 「日本国民史草稿」『論集ノペレオ騎馬民族説』大和書房, pp.165-171

<http://ja.wikipedia.org/wiki/%E4%BA%95%E4%B8%A%E7%A7%80%E9%9B%84>(검색일:2013.7.1)

<http://ja.wikipedia.org/wiki/%E6%B1%9F%E4%B8%A%E6%B3%A2%E5%A4%AB>(검색일:2013.7.10)

<http://yannaki.info/simagen.html>(검색일:2013.7.20)

---

논문투고일 : 2013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113년 10월 09일  
 2차 수정일 : 2013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0월 21일

---

---

 <要旨>
 

---

### 남방 왜인설의 목적 및 방법에 관한 고찰

#### - 일본민족 기원론과의 관련성 -

중국사서는 고대 일본의 주민을 왜인으로 표현해 왔기 때문에 종래 학계에서는 왜인을 고대 일본인으로 인식해 왔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왜인을 광의로 해석하여 왜인의 거처를 일본열도 외부에서 찾는 시도가 있었다. 특히 그중에서 왜인의 기원을 중국 남부나 동남아시아에서 벼농사와 어로를 생업으로 하는 민족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주류였다. 이러한 견해를 가칭 ‘남방 왜인설’이라 불린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남방 왜인설의 제창자들의 연구 목적과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그 속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들의 연구 목적은 어디까지나 혼합 민족으로서의 일본민족의 기원 탐구에 있었으며 왜인연구는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그들의 연구 방법은 고고학, 인류학 등을 원용하는 학제적 접근법이었으며 문헌분석은 그 일부분으로써 수행된 것이었다. 이처럼 남방 왜인설의 내용과 목적 및 방법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왜인을 고대 일본인으로 삼는 기존의 정설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An study on Aims and Methods of Views of Waein originated from Southeast Asia

#### - In Relevance with the Ethnogenesis of the Japanese -

Since Chinese history books called the residents of ancient Japan as ‘Waein(倭人)’, researchers in the academic world have conventionally recognized Waein as ancient Japanese. After World War II, however, some researchers have interpreted Waein in a broader sense, and sought for a residential area of Waein outside of the Japanese Islands. Especially, the view that Waein were both a farmer and fisher race that originated from southern China or Southeast Asia was the mainstream among those new views. These views were tentatively called “Views on Waein originated from Southeast Asia”. This study aimed at clarifying the attributes of these views by investigating goals and methods that typical advocate them. The aim of such prior studies was to pursuit the origin of the Japanese as hybrid race to the last and the study about Waein was being carried out as a part of this wider frame. The methods of their study wa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which syntheticized such fields as archaeology, anthropology, etc. The method of literature analysis of Chinese history books was just a part of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us, a close relevance can be verified between the content of studies, their aims and methods of “Views on Waein originated from Southeast Asia”. Probably, the established theory which postulates that Waein were the ancient Japanese also needs to be verified under such a viewpoint in a similar manner.